http://dx.doi.org/10.14400/JDC.2014.12.2.119

재비행 위험성의 정도에 따른 비행촉발요인과 PAI의 영향요인

김은미
건양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학과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Risk Assessment Tool and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by Recidivism Types of Juvenile Delinquents

Kim Eun Mi
Konyang Cyber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비행위험성 정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요인들을 설명하는 심리적인 특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피험자는 서울시 OO경찰청에서 비행행동으로 비행행동촉발 조사서와 PAI 검사를 받은 268명이었으며, 남자 220명, 여자 48명이었다. 비행 촉발요인에 대한 재비행 위험성 집단 간 차이는 가족구조를 제외한 5가지 요인, 즉 가족기능, 학교생활, 가출경험, 비행전력, 개인경험에서 차이가 있었다. 재비행 위험성 집단 간 PAI 검사 결과는 신체호소, 우울, 망상, 정신분열, 경계선, 반사회성, 음주문제, 약물사용의 임상척도와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의 치료고려 척도, 그리고 지배성과 온정성의 대인관계 척도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비행촉발요인과의 PAI 척도의 관련성에서는 대부분의 척도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며, 특히 우울은 모든 비행촉발요인과 상관이 나타났다. 비행촉발 요인 중 가족구조에 대한 설명력은 스트레스와 온정성이, 가족기능에서는 비지지와 음주문제가, 학교생활에서는 음주문제와 우울이, 가출경험에서는 음주문제와 스트레스가, 비행전력에 대해서는 음주문제가, 그리고 개인경험에 대해서는 음주문제와 지배성, 경계선이 설명력을 가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비행위험성 정도에 따라, 음주문제, 우울, 그리고 대인관계관련 척도가 비행촉발요인을 설명하였다. 비행의 원인으로 다양한 입장들이 있고, 개입요인들도 그에 따라 달라지지만, 비행청소년의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개입을 통해 비행행동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재비행, 청소년비행, 청소년범죄, PAI,비행촉발요인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of risk assessment tool and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by recidivism types of juvenile delinquents, the psychological factors that have a influence of juvenile behaviors. 268 incipient Juvenile criminals who had committed crime in the areas of Seoul, were categorized in the three degree of recidivism types. The result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risk assessment tool, such as family functioning risk factor, school risk factor, away-from-home risk factor, delinquent risk factor, and personal risk factor. PAI scores among the recidivism type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on SOM, DEP, PAR, SCZ, BOR, ANT, ALC, DRG, AGG, SUI, STR, NON, DOM, and WRM. The predictor variables explained a risk assessment tool were STR, ALC, DEP, DOM and WRM in PAI scales. And the interventions and preventions about juvenile delinquents discussed in psychological aspects.

Key Words : recidivism, juvenile delinquents, PAI, risk assessment tool

Received 13 December 2013, Revised 13 January 2014
Accepted 20 February 2014
Corresponding Author: Eun-Mi Kim(Konyang Cyber University)
Email: mulbyong0102@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t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의 범위에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고 불법적인 약물을 사용하거나 불을 지르는 등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 즉 비행 뿐 아니라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도 포함된다[1]. 청소년 비행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절도, 강도, 방화, 성폭력 등)을 저지르는 경우와 성인이 했을 경우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 지위비행(무단결석, 가출, 부모에게 반항, 흡연, 음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의 급변, 해체, 및 동요가 비행률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 범죄와 비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비행행동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다[2]. 그리고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비행 문제의 원인을 밝혀보면 청소년들의 이웃, 지역사회에 내재된 요인인 환경적 요인, 가족, 친구, 형제자매 및 또래집단의 대인관계요인, 성격 특성 및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하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런 요인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상승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폭력에 대한 사회・환경적 접근은 청소년 폭력을 이해하고 설명함에 있어서 사회적 맥락과 환경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학교폭력 문제가 청소년 개인만의 문제보다는 가정, 사회, 문화적 영향과 맞물려 발생한다고 본다[1].

청소년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정환경을 꼽았으며, 특히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결손 등의 구조적 측면과 부모와 자녀간의 심리적 거리, 양육태도, 의사소통 등의 기능적 측면을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3][4].

가족 배경은 청소년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행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와해된 가족과 긴장된 가족관계는 비행행동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이다. 가족의 응집력 결핍과 문제 많은 가족 관계는 특히 청소년 비행과 상관이 높은 중요한 요인이다. 물리적 가정환경과 부모의 지지가 직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가정환경은 부모의 지지를 완전매개로 하여 자기통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지지는 자기통제 수준을 완전매개로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3]. 부모의 물리적 존재와 관련된 가족구조의 결손보다는 부모의 심리적 기능과 관련된 자녀와의 관계, 양육태도 등이 청소년 폭력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5]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 청소년 자녀의 비행은 부모와의 소원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호이해 부족, 통제력 약화, 그리고 적절한 행동지도의 기회 부족 때문[6]이며 부모 자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을 떨쳐 가정문제를 유발시켜 청소년 자녀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거나 비행친구와의 만남을 촉진시킴으로서 청소년 자녀의 비행을 유발할 수 있다[7]. 많은 연구들은 부모의 지원과 청소년기의 적응과 부적응의 결과는 정적관계가 있어 많은 지원과 애정은 바람직한 청소년기의 결과를 가져오며[8][9], 지원적 부모의 행동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10].

청소년들이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될지, 아니면 사회의 규범에 벗어나는 일탈적 행동 혹은 비행을 저지르게 될 지의 여부는 그들이 사귀는 친구 혹은 집단이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 가치체계와 행동방식을 수용하는 부류인지 아니면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탈적인 가치와 행동방식을 택하고 있는 부류인지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1].

청소년들은 또래집단 내에서 무엇보다도 또래에 의해 사회화되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또래 지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비행 행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 수행 또한 비행에 중요한 요인이다[11]. 낮은 성적, 교실 내 문제행동, 학교 프로그램의 부적응, 관리자나 교사 및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등 성공적인 학교 수행의 결여는 비행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12].

사회구조적인 문제, 가족관계 및 동료 관계 등은 비행과 같은 행동양식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키기 보다는 비행에 취약한 개인적 특성을 발달시키는 환경으로 기능한다[13][14]. 폭력에 대한 개인 특성적 접근은 청소년들의 폭력행동을 나타내는 개인적・심리적 특성이 학교 폭력을 유발한다고 보는 이론으로서 폭력행동과 관련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으로서 분노와 공격성, 자기조절능력의 부족, 충동적인 성격 등이 발견되었다[4]. 잠재적인 비행청소년의 일탈적 위험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15].

청소년 비행은 다양한 정서 및 행동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바[16][17][18],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인 우울과 불안은 비행과 관련성이 높다[19]. 실제로 불

안수준만으로 비행 여부를 변별하는 설명력이 66.4%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0].

우울한 청소년들 가운데 약 30%가 품행장애 진단을 함께 받는다. 또한 청소년의 공격적 행위나 약물남용, 반항적 행위, 비행, 학습문제, 학교생활 부적응, 과다행동 등 외현화 된 형태로 드러나는 문제들의 기저에는 가면성 우울증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21].

비행청소년들은 사회인지 기술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 비행 청소년들은 모든 관계에서 큰 갈등을 경험하며, 이는 친구관계의 질과 안정성을 저하시킨다[12].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독단적이고, 반항적이며, 권위에 대해 양가 감정적이고, 쉽게 분노하고, 적대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22][23].

또한 범죄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구들을 보면, 상습적인 법죄자나 범죄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인지적 능력의 결여보다는 정서적 이상이 있음을 추정하고 있다[24].

다양한 관점에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행동양상과 사회적 요인 및 개인적 요인에 대안 많은 연구의 결과 청소년기 비행은 개인, 가정, 학교, 사회를 포함한 여러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으며[25], 여러 가지 정서문제가 행동문제들과도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어[16], 청소년 비행 문제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 및 관련된 변인을 위험요소의 관점에서 분석하게 될 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청소년의 비행을 촉발하게 하는 환경적 위험요소가 청소년 개개인에게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동일한 위험요소에 대해 청소년 개인이 지니고 있는 보호요소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청소년 개인이 위험요소를 지각하고, 해석하고, 이에 대해 반응하는 양태가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26].

다양한 자료들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예측하고, 그 관련성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 요인들이 어느 것이 비행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주로 비행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행동특성을 비교한 결과자료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에 따른 재범 위험성 차이에 관한 연구[27]에 따르면, 범죄유형별 비행촉발요인과 성격특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 비행촉발요인 6개 영역 중 5개 영역에서 비행유형과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범죄유형에 따른 PAI 성격특성을 분석한 결과, 타당도 척도 중 긍정적 인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고려척도에서는 공격성, 자살사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양종국[28]의 연구에서 비행청소년의 개인적 유발요인으로 불안증, 공격성, 반사회성이 범죄 위험성과 가장 관계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비행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개입이 또한 가능하다.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잠시 비행에 관여한 경우 일반적으로 재비행 가능성이 낮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재비행 위험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재비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개입할 수 있는 요인을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재비행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비행촉발요인 조사서와 PAI 검사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PAI검사 변인과 비행행동촉발요인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비행행동촉발조사 요인들에 PAI 척도가 얼마나 설명력을 가지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재비행가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면, 초기에 적절한 개입을 통해 재비행률을 낮추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심리적인 인성요인들이 비행촉발요인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다면, 심리적 개입을 통해 비행행동의 환경적 요소를 줄이고자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소년 비행 수준과 비행관련 변인의 관계를 개입과 예방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울 OO 경찰서에 입건된 청소년 284명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적절하고, 다탕도 척도에서 80이상의 부정적 인상, 긍정적 인상의 점수가 나온 자료를 제외한, 268명(남자 220명, 여자 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범죄 심리사와의 구조화된 면담을 한 후, PAI 검사지에 응답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에 참가한 비행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5.4세 이었다. 입건시 죄명으로 범죄유형을 구분하였는데, 절도 140명, 폭력 90명 이었으며, 무면허, 협박, 공문서 부정, 환각 등 기타 범법행위 집단이 33명이었다. 절도집단은 순수한 대물취득으로 오토바이 절도, 금품을 절도한 집단, 폭력집단은 교내외 폭력을 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재비행 위험성은 0점에서 10점까지는 낮은 것으로, 11점에서 20점까지는 약간 높은 것으로, 그리고 21점 이상을 높은 것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비행예측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은 175명, 중간정도 69명, 가장 높은 경우는 24명이었다.

2.2 평가도구

2.1.1 비행촉발요인조사(RAT.Risk Assessment Tool)

이 조사서는 이수정과 윤옥경[29]이 개발하여 경찰서 범죄 심리 조사서로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비행촉발요인 조사서는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별 비행요인은 가족의 구조적 위험요인, 가족의 기능적 위험요인, 학교생활요인, 가출경험요인, 비행전력 요인, 개인적 위험요인 및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의 구조적 위험요인은 가족결손여부,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 유무, 가족의 기능적 위험요인을 가정불화나 냉・담, 가족 간 신체 및 언어적 폭력 유・무, 가족 간 심리적 학대정도, 보호자와 애착 및 관심의 정도, 가족 구성원 중 전과자 유무가 있다. 학교생활 요인은 학력, 장기 결석이나 잦은 무단결석,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 학교에서 경고나 정학경험, 상급학교 진학예정, 교우관계, 가출경험요인으로는 가출경험, 가출하여 어울린 친구들 유무, 가출한 후 집단 생활한 경험, 비행전력 요인으로는 경찰서 입건, 유죄판결 전력, 소년원이나 교도소 경력, 보호관찰위반 경력, 비행전력 중 폭력, 강도, 살인 경험, 본 비행내용, 사전 모의 혹은 계획여부, 비행수법, 비행전력의 점진적 심각성, 최초 비행 연령이 있다. 개인적 위험요인으로는 음주유무, 본드나 가스 경험, 술이나 약물중독・남용여부, 인터넷 중독, 성경험으로 인한 문제, 성매매 경험, 본 범죄에 대한 책임인식, 피해자 입장이해,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인식, 준법의식, 인생 목표의 현실성 및 노력정도, 인지능력 손상, 정서 상태, 대처능력, 충동적 행위 탐닉, 분노경험, 상담태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비행촉발요인조사서의 내적 합치도는 .75이었다.

2.1.2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성격평가질문지는 기존의 다른 자기보고식 설문지보다 사법현장에서 교정대상자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0]. PAI는 총 34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중간이다, 매우 그렇다 의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타당도 척도는 수검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비일관성, 저빈도, 부정적 인상, 긍정적 인상 4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상척도는 신체적 호소, 불안, 불안관련 장애, 우울, 조증, 망상, 정신분열병, 경제선적 특징, 반사회적 특징, 음주문제, 약물사용 11개의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치료고려척도는 치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 치료거부의 5개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대인관계 척도는 대인 관계적 측면을 평가하는 지배성, 온정성의 2개 척도로 구성되었다.

9개의 임상척도와 치료고려 척도중 공격성은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각 척도는 T점수로 환산되며, T점수 70이상은 비정상적인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준화 연구결과 PAI의 내적 합치도는 .60~.88,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77~.91 범위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5이었다.

2.3 자료분석

재비행집단간 차이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제시한 후, 각 척도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을 토대로 하여, 유의미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요인별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선택방법으로는 단계선택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8.0 이었다.

3. 결과

3.1 재비행 위험성에 따른 비행촉발요인 및 PAI 분석

재비행 위험성에 따른 비행촉발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표 1과 같다. 재비행 위험성이 낮을 경우, 비행전력이 가장 높은 점수였으며, 재비행 위험성이 중간정도와 높은 경우는 개인적인 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재비행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학교생활과 개인적 요인이었다.

가족구조, 가족기능, 학교생활, 가출경험, 비행전력 및 개인요인은 재비행 위험성이 높을수록 높았다. 재비행 위험성의 정도에 따른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해 본 결과, 가족구조(F(2, 268)=8.23), 가족기능(F(2, 268)=94.43), 학교생활(F(2, 268)=142.46), 가출경험 (F(2, 268)=69.23), 비행전력 (F(2, 268)=64.95), 개인요인(F(2, 268)=328.6)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1〉 Mean(SD) and F value of RAT by recidivism level

	recidivism level			F
	low	middle	upper	
family structure	.29 (.492)	.39 (.574)	.75 (.608)	8.23***
family functioning	.29 (.677)	1.57 (1.409)	2.79 (1.318)	94.43***
school risk	.92 (1.101)	2.77 (1.296)	4.50 (.978)	142.46***
away-from -home risk	.34 (.691)	1.20 (1.145)	2.29 (.955)	69.23***
delinquent risk	1.26 (1.321)	2.67 (1.712)	4.46 (1.444)	64.95***
personal risk	1.01 (1.271)	5.35 (2.418)	8.83 (1.880)	328.60***

*p<.05, **p<.01, ***p<.001

재비행 위험성에 따른 PAI 검사결과를 보면 표 2와 같다. 재비행 위험성에 따른 PAI검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비행위험성이 높을수록 각 임상척도는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조증은 재비행성 점수가 높을수록 낮아지고 있다. 치료고려 척도에서는 치료거부를 제외한 모든 척도가 비행성이 높아질수록 상승하고 있다. 치료거부척도는 가장 비행성이 낮은 경우 가장 높았고, 중간정도의 비행성에서 가장 낮았다. 대인관계 척도에서는 지배성과 온정성이 비행성이 높을수록 감소하고 있다.

임상척도상 가장 점수가 높은 척도는 신체호소, 우울, 망상, 경계선, 반사회성, 음주문제, 약물사용 등이었으며, 치료고려척도에서는 스트레스와 비지지가 가장 높은 점수였다.

재비행위험성의 정도에 따른 PAI의 유의미성을 확인해 본 결과, 임상척도에서는 신체호소 (F(2, 268)=7.99), 우울(F(2, 268)=10.19), 망상(F(2, 268)=10.54), 정신분열(F(2, 268)=6.13), 경계선 (F(2, 268)=8.40), 반사회성(F(2, 268)=5.12), 음주문제(F(2, 268)=27.95), 약물사용(F(2, 268)=10.63)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치료고려척도에서는 공격성(F(2, 268)=5.34), 자살관념(F(2, 268)=8.6), 스트레스(F(2, 268)=6.23), 비지지(F(2, 268)=13.76)가, 그리고 대인관계 척도에서는 지배성(F(2,268)=8.95), 그리고 온정성(F(2,268)=6.74)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척도에서는 불안, 불안장애, 조증이 그리고 치료고려척도에서는 치료거부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Mean(SD) and F value of PAI by recidivism level

	recidivism type			F
	low	middle	upper	
SOM	46.78(9.09)	48.32(9.96)	55.04(11.48)	7.99***
ANX	45.33(9.97)	46.81(10.09)	49.83(14.30)	2.17
ARD	45.86(9.67)	46.75(10.16)	49.21(15.05)	1.17
DEP	48.49(11.48)	51.61(11.22)	59.33(11.34)	10.19***
MAN	46.78(10.07)	45.99(10.06)	45.88(11.06)	.2
PAR	46.86(10.67)	51.07(11.21)	57.00(14.25)	10.54***
SCZ	44.44(9.94)	47.45(9.26)	51.13(10.88)	6.13**
BOR	47.37(11.18)	50.03(11.41)	57.04(10.08)	8.4***
ANT	51.03(10.90)	52.30(9.60)	58.38(10.91)	5.12**
ALT	47.38(7.93)	52.62(9.33)	60.71(13.42)	27.95***
DRG	49.91(9.11)	54.62(9.24)	57.33(12.49)	10.63***
AGG	48.78(12.03)	51.29(10.24)	56.83(14.26)	5.34**
SUI	48.08(10.65)	48.42(9.79)	57.54(12.06)	8.6***
STR	50.38(10.84)	51.43(9.49)	58.54(12.05)	6.23**
NON	49.71(11.53)	56.35(11.29)	59.79(12.12)	13.76***
RXR	53.09(9.44)	50.97(10.75)	51.29(10.86)	1.28
DOM	51.91(11.046)	46.55(10.12)	44.71(12.02)	8.95***
WRM	55.04(10.45)	50.49(9.78)	49.54(9.84)	6.71***

*p<.05, **p<.01, *** p<.001

3.2 비행촉발요인과 PAI의 상호관계 분석

비행촉발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PAI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상관관계를 하였다. 대부분의 척도들이 상관관계에서 유의미하였다. 특히 가족기능은 조증과 반사회성 척도를 제외한 다른 척도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며, 대인관계 척도에서는 역상관이 있었다.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조증을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

는데, 치료거부와 지배성, 온정성 척도에서는 역상관이 있었다. 그 외 개인적 요인에서 임상 척도중 불안장애와 조증, 스트레스, 치료거부를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며, 대인관계척도는 역상관이 나타났다. 한편, 임상 척도중 우울은 비행촉발요인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3.3 비행예측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PAI 척도 분석

유의미한 상관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각 PAI척도가 비행촉발요인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3.1 가족구조에 따른 PAI 척도 회귀분석 결과

PAI 척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가족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다른 척도는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스트레스와 온정성이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8.45, 유의확률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 유의수준 .001에서 가족구조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가족구조 총 변화량의 6%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가족구조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스트레스(t=3.04, p=.005), 온정성(t=-2.35, p=.05)이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스트레스, 온정성의 순으로 가족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의 구조적 특성자체가 스트레스의 완충역할로서의 의미를 갖고, 대인관계에서 타인으로부터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총 변화량은 높지 않은 바, 이는 가족구조 자체는 비행행동 정도와의 관련성에 커다란 설명력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족구조 자체보다는 가족의 전체적인 기능적 측면이 더 의미 있는 설명변인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3〉 regression table by family structure risk factor

model		Bi		β	t	R^2	$AdjR^2$	F
		B	SE					
1	STR	.010	.003	.201	3.347***	.040	.037	11.201***
	STR	.009	.003	.182	3.037**			
2	WRM	-.007	.003	-.141	-2.347*	.060	.053	8.450***

*p<.05, **p<.01, *** p<.001

3.3.2 가족기능에 따른 PAI 척도 회귀분석 결과

PAI 척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비지지와 음주문제가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28.41, 유의확률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1에서 가족기능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가족기능 총 변화량의 17%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가족기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비지지(t=5.18, p=.000), 음주문제(t=3.37, p=.001)이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비지지, 음주문제의 순으로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 간의 기능적인 관계는 서로간의 심리적 지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알콜 남용과 관련되는 항목으로 설명할 수 있다.

〈Table 4〉 regression table by family functional risk factor

model		Bi		β	t	R^2	$AdjR^2$	F
		B	SE					
1	NON	.040	.006	.376	6.617***	.141	.138	43.780***
	NON	.033	.006	.307	5.179***			
2	ALC	.026	.008	.200	3.367***	.177	.170	28.409***

*p<.05, **p<.01, *** p<.001

3.3.3 학교생활에 따른 PAI 척도 회귀분석 결과

PAI 척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음주문제와 우울이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24.77, 유의확률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학교생활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의 총 변화량의 15%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학교생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음주문제(t=4.85, p=.000), 우울(t=3.18, p=.005)이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음주문제, 우울의 순으로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Table 4〉 regression table by school risk factor

model		Bi		β	t	R^2	AdjR^2	F
		B	SE					
1	ALC	.060	.010	.354	6.173***	.125	.122	38.104***
2	ALC	.049	.010	.290	4.850***	.158	.151	24.772***
	DEP	.027	.008	.190	3.183**			

*p<.05, **p<.01, *** p<.001

3.3.4 가출경험에 따른 PAI 척도 회귀분석 결과

PAI 척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가출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음주문제와 스트레스가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13.0, 유의확률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1에서 가족구조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가출경험 총 변화량의 8%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가출경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음주문제(t=3.94, p=.000), 스트레스(t=1.99, p=.05)이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음주문제, 스트레스의 순으로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Table 6〉 regression table by away-from-home risk factor

model		Bi		β	t	R^2	AdjR^2	F
		B	SE					
1	ALC	.030	.006	.275	4.667***	.076	.072	21.780***
2	ALC	.026	.007	.241	3.936***	.089	.082	13.001***
	STR	.012	.006	.122	1.994*			

*p<.05, **p<.01, *** p<.001

3.3.5 비행전력에 따른 PAI 척도 회귀분석 결과

PAI 척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비행전력에 미치는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다른 척도는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음주문제가 포함된 모형의 F통계값은 41.6이며, 유의확률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가족구조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비행전력의 총 변화량의 13%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비행전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음주문제(t=6.45, p=.000)이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음주문제 단독으로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Table 7〉 regression table by delinquent risk factor

model		Bi		β	t	R^2	AdjR^2	F
		B	SE					
1	ALC	.066	.010	.368	6.450***	.135	.132	41.607***

*p<.05, **p<.01, *** p<.001

3.3.6 개인요인에 따른 PAI 척도 회귀분석 결과

PAI 척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개인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음주문제, 지배성 그리고 경계선이 포함된 모형의 F통계값은 24.36이며, 유의확률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1에서 개인요인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개인요인의 총 변화량의 20%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된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개인요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음주문제(t=5.59, p=.000), 지배성(t=-3.73, p=.000), 그리고 경계선(t=2.35, p=.05)의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음주문제, 지배성, 경계선의 순으로 개인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Table 8〉 regression table by personal risk factor

model		Bi		β	t	R^2	AdjR^2	F
		B	SE					
1	ALC	.129	.018	.399	7.105***	.160	.156	50.486***
2	ALC	.121	.018	.376	6.803***	.200	.194	33.221***
	DOM	-.057	.016	-.204	-3.684***			
3	ALC	.106	.019	.327	5.585***	.217	.208	24.362***
	DOM	-.057	.015	-.204	-3.730***			
	BOR	.038	.016	.137	2.348*			

*p<.05, **p<.01, ***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행성 예측자료를 바탕으로 비행행동에 영향을 비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각 비행행동이 PAI 척도와의 관련성을 확

인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비행촉발요인들에 PAI 척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비행위험성 정도에 따른 재비행 촉발요인의 점수를 보면, 이남희 등[31]의 결과와 같았는데, 비행촉발요인의 5개 영역 즉 가족기능, 학교관련, 비행관련, 가출경험, 개인요인 등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집단에 따른 재비행 위험성에 따른 차이가 큰 것은 개인요인과 학교생활이었다. 개인요인은 범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된 개인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비행행동에 개인의 통제력과의 관련성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3].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심리특성을 주요한 재범요인으로 지적하는 바, 자기중심적이며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고, 동정심과 수치심이 부재하며, 계획능력과 경험에서 배우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로 확인되고 있으나 동시에 자극적인 것을 선호하고 원하는 것은 매우 충동적으로 충족시키려고 하는 경향 역시 두드러진다고 한다.[32]

집단간 PAI 성격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집단간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임상척도에서는 음주문제, 약물사용, 망상, 그리고 우울에서 나타났으며, 치료고려척도에서는 비지지 척도가 집단간 차이가 가장 컸다.

비행촉발요인과 PAI 검사의 상호관계에서는 대부분의 척도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비행촉발요인에 영향을 주는 PAI 척도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가족구조에는 스트레스와 온정성이, 가족기능에서는 비지지와 음주문제가 유의미하였다. 설명력이 크지는 않으나, 많은 청소년들의 비행행동에 가족 간의 기능적 측면이 매개함을 보여준 연구들[4][33]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귀가시간의 감독, 외출 금지 같은 부모훈련은 재범율을 감소시킬 수 있음[32]을 의미한다.

그 외 학교생활, 가출경험, 비행전력, 그리고 개인요인에서 음주문제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비행촉발요인을 예측하는 자료로 음주문제가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음주문제는 알콜사용, 남용, 의존과 관련된 행동과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비행에서의 통제력의 중요성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는 가족의 기능적 측면과도 관련이 있다.

그 외 임상척도로는 우울, 경계선 척도가 비행촉발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비행연구에서 곽금주와 문은영[19]은 우울이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높은 변인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우울은 학교생활요인을 설명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우울한 정서가 학교요인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치료고려 척도로는 스트레스와 비지지 척도가 비행촉발 요인을 설명해주며, 가족 구조, 가족기능, 그리고 가출경험을 설명하는 척도들이다.

대인관계 척도인 온정성, 지배성 두 가지 척도는 모두 청소년 비행촉발 요인을 설명하고 있으며, 두 가지 속성이 서로 상반되는 특성임에도 개인요인과 가족구조를 설명하고 있어, 그 의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재비행 위험성 정도에 따른 비행촉발요인의 영향요인과 PAI 척도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비행촉발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PAI 척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조발비행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심리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에서 개입될 필요가 있다. 이는 범죄자들의 잠재적인 위험특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정책적으로 개인차를 고려해서 개별화된 판결 및 교화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32]

청소년기 비행의 특성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정서 및 행동문제와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사회적 측면에서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의 영역에서 심리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의 개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안 점을 갖는다. 첫째, 피험자의 구성에서의 한계이다. 비행으로 인해 경찰서의 비행조사서에 응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 비행은 실제로 경찰서까지 오지 않고, 학교의 차원에서 결정되어 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들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 환경적 요소에 대한 자료축적의 한계가 있다. 둘째, 비행청소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일반 학생들의 심리검사 결과와 비행성향을 비교하면 그 영향 요인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반학생과 비행학생과의 비행 정도에 대한 구체적 구분이 객관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검사자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수정(2009)에 따르면, 비행촉발요인조사서 도구는 평가자간 신뢰도가 담보가 되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성을 예측한 평가자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각 평가자간에 비행성 예측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향후 많은 자료의 축적을 통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비행행동에 대한 이해가 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Y. S. Lim. The Study of factors related to School Vilo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5, No. 3. pp. 1-26. 1998.

[2] Tolan, P. H., Guerra, N. G., & Kendall, P."A. Developmental-Ecologic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owards Unified Risk and Intervention Framework."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579-584. 1995.

[3] H. J. Baek.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Support and Self-Control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Home-Environment and Juvenile Dellinquencie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2, No 4, PP. 37-56. 2009.

[4] E. H. Lee, S. J. Gong & C. S. Lee. Relationships Among socio-environmental school violence risk factors, protective factors and bullying at school:testing a mediational model of anger control and contact with delinquent friends. The Korean Jounal of Counseling and Psycholtherapy. Vol. 16, No. 1, 123-145. 2004.

[5] J. H. Kim & S. H. Kim. A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nd juvenile delinquenc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992.

[6] H. Y. Min, The relation between juvenile Deliquency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Chesion and Adaptability.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1

[7] T. S. Choi. A causal analysis among psychological variables of family dynamics affecting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nd deviant behavior. Ph.D. Chunnam National University. 1997.

[8] Barber. B. K., & Rollins, B. C.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0.

[9] Barnes, G. M., Farrell, M. P., & Windle, M. Parent-adolescent interactions in the development of alcohol abuse and other deviant behaviors. F*amily Perspertives, 21,* 321-335.1987.

[10]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11] Maguin, E., & Loeber, R.(1996). academic performance and delinquency. In M. Tonry(Ed),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20, 145-26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96.

[12] Huizinga, D., and Jakob-Chien, D.(1998). "The Contemporaneous Co-Occurrence of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ing and Other Behavior Problems." In R. Boeber and D. P. Farrington(Eds.)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Risk Factors and Successful Intervention*(PP. 47-67). thousand Oaks, CA: Sage.

[13] Brooks, G. J., & Reiter, E.. The role of pubertal processes. In S. Feldman, & G. Elliott(Eds.), *At the threshold:the developing adolescent(pp. 16-23).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1990

[14] C. S. Kim. The Effect of Depression, Stress Coping and Hardiness on Delinquency in Adolo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e Psychology. Vol. 12, No. 3, pp 587-598. 2007.

[15] S. K. Go. The relationship of juvenile delinquency between personality in MBTI. Md. Busan National University. 1994.

[16] H. Y. Kim. The relation between the mental health and the delinquency of adolescent under probation and the influence of parenting. The Korean Journal of child welfare vol. 10. pp. 9-31, 2000

[17] H. Y. Lee, H. S. Shin, & K. S. Lee. Development of a self-report form of the adolescent problem behavior rating scale: Tests of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7, No. 1, 147-170. 2004a.

[18] H. Y. Lee, K. S. Lee, & H. S. Shin. A study on social-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at differentiate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prostitution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1, No. 4, pp. 297-315. 2004b.

[19] K. J. Kwak, E. Y Mun. The Relationship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pre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8 No1 pp. 1-11, 1995.

[20] H. S. Shin, K. S. Lee, H. G. Lee & K. S. Shil. Sex-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comorbidity of depression/anxiety and aggression on adjustment problems of juvenile delinqu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6, No. 3, pp. 491-510. 2004.

[21] Chiles, J. A., Miller, M. L., & Cox, G. B. Depression in an adolescent delinquent population. Archives General Psychoiaty, 37, 1179-1184. 1980.

[22] Caspi, A., Lynan, D., Moffitt, T. E., & Silva, P. A. "Unraveling Girls' Delinquency:Biological, dispositional, and Contextual Contributions to Adolescent Mis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9-30. 1993.

[23] Feldman, S. S. & Weinberger, D. A. Self-restraint as a dediator of family influences on boy's delinquent behavior. 1994.

[24] Blair, J. R., Mitchell, D. G. V., Richell, R. A., Kelly, S., Leonard, A., Newman, C., & Scott, S. K. Turning a deaf ear to fear: impaired recognition of vocal affect in psychopathic individuals. Journal of Abnorman Psychology, 111(4), 682-686. 2002.

[25] E. K. Lee, S. H. Jee, J. E. Lee, S. M. Choi, & C. S. Jung.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youth deliquency risk-factor and protective-factor scal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 11, No. 2, pp. 57-70. 2003

[26] Guerra, N.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Gaps in knowledge and research priorities. In R. Loeber & D. P. Farrington(Eds.), Serious & Violent Juvenile Offenders(pp. 389-443). 1999.

[27] S. J. Lee & E K. Cho. Development of a risk assessment tool for juveniles at police investig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19. No. 1. 2005.

[28] J. K. Yang. Relationships among Delinquent Risk Factors, Protective Factors and Recidivism of Juvenile Delinquency.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10, No. 2, 101-121. 2002.

[29] S. J. Lee, & O. K.Yoon. Risk assessment procedures and their application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Vol. 22. No. 2, 99-126.

[30] Wang, E. W., Rogers, R. Giles, C. L., diamond, P. M., Herrington-Wang, L.E., & Tylor, E. R>. a pilot study of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ary(PAI) in corrections: assessment of malingering, suicide risk, and aggression in male inmates. Bheavioral Science and the Law, 15, 469-482. 1997.

[31] N. H. Lee & B. K. Lee.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risk factor of recidivism classified by offense types of juvenile delinquents-using risk assessment tool and personality assessemnt inventory.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3, No. 2, 127-140. 2009.

[32] S. J. Lee, S. Y. Koh, & C. G. Lee. The dysfunction of emotional recognition among the high risk juvenile offender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18, No. 3, 1-13. 2004.

[33] E. H. Lee, T. S. Choi & M. J. Seo. Effects of Stress Related to School, Self-Esteem,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and Parents' Internal Support of Adolescent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2, No. 2. pp. 69-84. 2000.

김 은 미(Kim, Eun Mi)

- 1994년 2월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01년 8월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 청소년, 범죄
- E-Mail : minjk@kycu.ac.kr